

江攝과 宕攝의 혼용 양상과 분포

— 『玄應音義』와 『慧琳音義』를 중심으로

박성준*

목 차

1. 서론
 - 1) 연구 동기 및 대상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2. 江攝과 宕攝의 음운 체계
3. 『玄應音義』의 江攝과 宕攝 반절 분석
 - 1) 『玄應音義』의 江攝 반절 분석
 - 2) 『玄應音義』의 宕攝 반절 분석
4. 『慧琳音義』의 江攝과 宕攝 반절 분석
 - 1) 『慧琳音義』의 江攝 반절 분석
 - 2) 『慧琳音義』의 宕攝 반절 분석
5. 江攝과 宕攝의 혼용 양상과 분포 특징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를 대상으로 江攝의 江韻과 宕攝의 唐韻과 陽韻의 대응 양상을 재검토하고, 세韻 간 혼용의 존재 여부와 혼용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韻이 대체로 독립적인 운류로 유지되며, 세韻 간의 혼용 사례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세韻 간의 예외적 교차 대응이 확인되었다.

한편 혼용 사례는 특정 성조에 국한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특정 음운 환경과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혼용을 곧바로 체계적인 음운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료 전승 과정에서 표기 변이나 개별적 예외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그럼에도 제한적인 혼용 사례가 두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기 중고 한어에서 후기 중고 한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 韻 간 대립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음운 환경에서 제한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키워드: 중고음, 일체경음의, 현응음의, 혜립음의, 강섭, 탕섭

1. 서론

1) 연구 동기 및 대상

중고 한어의 운모 체계에서 江攝¹⁾에는 江韻이 있고, 宕攝에는 唐韻과 陽韻²⁾이 있다. 이 세 韻은 중고 한어 시기에는 대체로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운류로 이해되어 왔으며, 근대 한어에 이르러 점차 합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현대 한어에서도 이 세 韻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합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특히 중고 한어 시기 내부에서 세 韻 간 대응 관계에 어떠한 변동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⁴⁾

- 1) 攝은 등운학에서 韻腹과 韻尾가 같거나 유사한 韻을 하나의 계열로 묶은 개념을 가리킨다 (馬文熙·張歸璧 2004: 256) 이 용어는 후기 중고 한어 시기에 정립된 것이지만, 전기 중고 한어 시기에도 그 범주 자체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사용한다.
- 2) 상성과 거성의 운목은 평성의 운목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후 다른 경우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 3) 근대 한어를 대표하는 운서인 『中原音韻』에서도 이 세 韻은 ‘江陽韻’으로 통합된 것으로 나타난다.
- 4) 王力(1980: 185)은 5세기 무렵부터 江攝과 宕攝의 합류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唐韻(aŋ, uaŋ), 江韻(ɔŋ), 陽韻(iaŋ, iwaŋ)이 [aŋ]·[iaŋ]·[uaŋ]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불경 음의 자료인 玄應의 『一切經音義』와 慧琳의 『一切經音義』⁵⁾이다. 이 두 문헌은 중고 한어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자료로,⁶⁾ 『玄應音義』는 전기 중고 한어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반면, 『慧琳音義』는 전기에서 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자료로 평가된다.⁷⁾ 따라서 두 문헌의 비교를 통해 중고 한어 시기 내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62)에서 간행한 『玄應音義』와 大正新脩大正藏經(2007)에 수록된 『慧琳音義』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김두재(2000), 김상환(2000)을 참고하여 자료를 비교·대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두 문헌에서 江攝의 江韻과 宕攝의 唐韻과 陽韻이 각각 독립적인 운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韻 간의 혼용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중고 한어 시기에 세韻의 대립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두 문헌의 반절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江韻과 唐韻·陽韻 간의 혼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는 그 수가 적고 특정 음운 환경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5) 이하 『玄應音義』, 『慧琳音義』라 칭한다.

6) 『玄應音義』와 『慧琳音義』는 모두 唐代 사대부 계층에서 사용된 표준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박성준 2026: 49-50, 54-57)

7) 『玄應音義』의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01년경 편찬이 시작되어 7세기 중반(649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문헌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慧琳音義』의 경우 景審의 『一切經音義·序』에 “建中 말년(783)에 편찬이 시작되어, 元和 2년(807)에 완성되었다.(建中末年敕制, 至元和二祀方就.)”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徐時儀(1989: 26)는 『冊府元龜』와 『佛祖統紀』 등의 기록을 근거로 해당 저술이 元和 3년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文亦武(2000: 18)와 신원철(2021: 4) 역시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慧琳音義』의 편찬 시기를 元和 2년, 즉 807년으로 설정하며, 전기 중고 한어에서 후기 중고 한어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의 자료로 본다.

8) 본 논문에서 ‘혼용’이라 함은 피절자가 속한韻과 상이한韻에 속하는 글자가 반절하자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동일韻 내에서의 일반적인 반절 대응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韻 간에 교차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를 ‘혼용’으로 판단한다.

수정할 정도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례가 두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혼용이 주로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일부 평성 및 상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를 대상으로 江韻과 唐韻·陽韻의 대응 양상을 재검토하고, 세韻 간 혼용의 존재 여부와 그 분포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혼용이 어떠한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그 분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중고 한어 시기에 세韻 간 대응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玄應音義』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주로 성모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음운 자료를 활용한 성모 체계의 분석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玄應音義』의 성모 체계와 음운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운모 체계, 특히韻의 합류와 분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

한편 박성준(2026)에서는 『玄應音義』와 『慧琳音義』를 비교하여 운모 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玄應音義』의 운모 체계가 『切韻』系 운서와 전반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 이는 『玄應音義』의 음운 체계가 단순히 『切韻』系 운서의 체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切韻』系 운서와 완전히 일치하

9) 蟹攝의 皆韻·夬韻, 臻攝의 眞韻·臻韻 등 일부韻에서는 이미 합병의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通攝 東1韻·冬韻, 山攝 刪韻·山韻, 梗攝 庚2韻·耕韻, 咸攝 咸韻·銜韻 등에서 2等韻의 重韻이 점차 소실되며, 전반적으로 합병의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玄應音義』 시기에 일부韻 간 음운적 경계가 약화되고 상호 합병이 개시되었음을 시사한다. (박성준 2026: 181)

지 않는 일부 대응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江攝과 宕攝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하나의 攝 내부에서 나타나는 혼용 현상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江攝의 경우 단일 韻인 江韻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 혼용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제한적이며, 宕攝은 唐韻과 陽韻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韻은 각각 1等과 3等으로 等이 상이하어 동일한 범주 내에서 혼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두 攝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江攝과 宕攝 간의 관계를 반절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중고 한어 시기 운모 체계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慧琳音義』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는 金雪萊(2005)와 趙翠陽(2009)을 비롯한 선행 연구에서 이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金雪萊(2005)는 『一切經音義』의 음운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江韻과 唐韻·陽韻의 반절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趙翠陽(2009)은 운류 체계를 중심으로 江韻·唐韻·陽韻의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江韻·唐韻·陽韻이 각각 독립적인 운류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 韻 간의 혼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⁰⁾ 기존 연구에서는 세 韻 간 혼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판본의 차이나 반절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일부 사례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 논문에서 반절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부 혼용 사례가 확인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반절 자료를 중심으로 세 韻 간의 대응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에 나타난 반절 자료를 추출·정리하고, 각 피절자가 속하는 韻을

10) 金雪萊(2005: 35-36, 67-70)의 반절 자료 분석에서는 江攝의 江韻과 宕攝의 唐韻과 陽韻 간의 혼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趙翠陽(2009: 22, 40-41, 49, 53)에서도 피절자가 江韻인 경우 반절하자로 唐韻과 陽韻을 사용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피절자가 唐韻과 陽韻인 경우 반절하자로 江韻을 사용한 사례는 3회 확인된다.

기준으로 반절하자와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음운 자료는 반절 자료이며, 이를 위해 자료 정리 방식을 설정하여 일관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에 나타나는 전체 반절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고, 각 피절자와 반절상자 및 반절하자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玄應音義』에는 총 11,338개의 반절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慧琳音義』에는 총 39,659개의 반절 자료가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각 반절을 반절상자와 반절하자로 분리하여 정리하고, 음운 표기에서 성모·운모·성조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반절 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혼용 사례의 빈도와 분포를 함께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가 어떠한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혼용이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과 더불어 일부 평성 및 상성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세 韻 간 혼용의 분포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江攝과 宕攝의 음운 체계

전기 중고 한어의 운모 체계에서 江韻·唐韻·陽韻은 『切韻』系 운서에서 전통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운류로 분류되어 왔다. 이 세 韻은 等に 서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江韻은 2等に 속하고, 唐韻은 1等, 陽韻은 3等に 속하여 명확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는 각 韻이 체계적으로 구별되는 운류임을 뒷받침한다.

본 논문에서는 江韻은 [-æŋ]¹¹⁾, 唐韻은 [-(w)aŋ], 陽韻은 [-j, i}(w)aŋ]¹²⁾

11)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음가는 백스터(Baxter 1992:82-85)를 따르되, ‘-ng’은 모두 ‘-ŋ’으로 수정한다.

으로 재구하였으며, 이는 주요 모음 및 개음의 차이를 통해 세 韻 간 음운적 구별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구음의 차이는 『切韻』系 운서의 반절 체계에서도 반영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 중고 한어 시기 江攝의 江韻과 宕攝의 唐韻과 陽韻의 음운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 체계적 차이는 이후 반절 자료 분석에서 세 韻 간 대응 관계 및 혼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표 2.1> 전기 중고 한어 시기 江攝과 宕攝의 음운 체계¹³⁾

攝	韻	等	재구음
江攝	江韻	2等	-æŋ
宕攝	唐韻	1等	-(w)aŋ
	陽韻	3等	-(j, i)(w)aŋ

3. 『玄應音義』의 江攝과 宕攝 반절 분석

『玄應音義』는 불경 음의 자료로서 전기 중고 한어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문헌이다. 본 장에서는 『玄應音義』에 나타난 반절 자료를 대상으로 江韻·唐韻·陽韻 간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 韻 간의 분리 여부 및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은 각 피절자가 속하는 韻을 기준으로 반절하자의 韻을 대조하는 방식

12) 3등 개음은 -(j, i)-로 설정하였다. 이는 두 음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함을 의미한다. 3등 개음을 이와 같이 구분한 것은 麥耘(1992: 121-124), 백스터(1992: 59-61), 권혁준(2000, 2002, 2018) 등의 의견을 따르며, 그 음가와 표기는 권혁준의 기준에 따른다.

13) 入聲의 재구음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入聲은 해당 운모의 '-m, -n, -ŋ' 운미를 각각 '-p, -t, -k' 운미로 전환하여 대응한다.

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韻 내 대응이 유지되는지, 혹은 서로 다른 韻 간 혼용이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대응 양상을 세 韻 간 음운적 대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玄應音義』의 江攝 반절 분석

『玄應音義』에 나타난 江攝의 江韻 피절자와 반절하자를 대상으로 대응 관계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 韻 내에서의 대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절자가 속하는 韻을 기준으로 반절하자의 韻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江韻에 속하는 피절자는 반절 구성에서 역시 江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동일 韻 내 대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의 혼용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江韻 내부의 대응은 높은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 관계는 江韻이 독립적인 운류로서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보여주며, 반절 표기에서도 그 구별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玄應音義』 시기에는 江攝 내부에서의 운류 구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다른 攝에 속하는 韻과의 체계적인 혼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예외적인 대응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동일 韻 내 대응이라는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체계적인 혼용이라기보다는 개별 표기의 변이나 예외적 대응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된다.

「표 3.1」 『玄應音義』 江韻의 예외 사례

피절자	반절하자	운	성조 / 等	출처
牒(覺韻) ¹⁴⁾	酌	藥韻	입성 / 3等	『玄應音義』 16卷 「大愛道比丘尼經」 下卷

이 사례는 江韻에 속하는 피절자가 陽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한 경우로, 동일 韻 내 대응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예에 해당한다. 『玄應音義』의 江韻 반절 자료에서 다른 韻 간 혼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체계적 규칙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는 江韻과 陽韻 간의 예외적 혼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대에 나타나는 합류 현상과의 관련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玄應音義』의 江韻 반절 자료는 총 130건이며, 이 중 혼용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동일 韻 내 대응이 우세함을 보여주며, 해당 예외가 체계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난 사례임을 뒷받침한다.

2) 『玄應音義』의 宕攝 반절 분석

한편 『玄應音義』에 나타난 宕攝의 唐韻과 陽韻의 피절자와 반절하자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 韻 내에서의 대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唐韻에 속하는 피절자는 반절 구성에서 역시 唐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며, 陽韻에 속하는 피절자는 반절 구성에서 역시 陽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玄應音義』에 나타나는 唐韻과 陽韻은 동일 韻 내 대응이 반복적으로

14) 입성의 경우에만 별도의 운목을 부여했다. 이후 다른 경우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나타나고, 두 韻 간 혼용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唐韻과 陽韻이 독립적인 운류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보여주며, 반절 표기에서도 그 구별이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玄應音義』 시기에는 宕攝 내부에서도 운류 간 경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일 攝 내부에서조차 체계적인 혼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 예외적인 대응이 관찰되며, 이는 일반적인 대응 체계에서 벗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대응은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된다.

〈표 3.2〉 『玄應音義』 唐韻의 예외 사례

피절자	반절하자	운	성조 / 等	출처
窺(鐸韻)	捉	覺韻	입성 / 2等	『玄應音義』 5卷 「發覺淨心經」 下卷
航(唐韻)	江	江韻	평성 / 2等	『玄應音義』 17卷 「俱舍論」 6卷
擯(鐸韻)	學	覺韻	입성 / 2等	『玄應音義』 20卷 「六度集經」 4卷

이 사례들은 唐韻에 속하는 피절자가 江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한 경우로, 동일 韻 내 대응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예에 해당한다. 『玄應音義』의 唐韻과 陽韻 반절 자료에서 다른 韻 간 혼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체계적 규칙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들은 江韻과 唐韻 간의 예외적 혼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대에 나타나는 합류 현상과의 관련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玄應音義』의 唐韻과 陽韻 반절 자료는 총 736건이며, 이 중 혼용 사례는 3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두 韻의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확인된 혼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난 예외적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玄應音義』의 반절 자료에서 江韻·唐韻·陽韻은 각각 분리된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韻 간의 혼용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해당 시기까지 세韻의 대립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일부 사례에서 확인되는 제한적 혼용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를 제공한다.

4. 『慧琳音義』의 江攝과 宕攝 반절 분석

『慧琳音義』는 『玄應音義』에 비해 보다 방대한 반절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기 중고 한어에서 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한편 『玄應音義』가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문헌의 비교를 통해 중고 한어 시기 내부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화의 진행 양상 및 혼용의 확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慧琳音義』는 江韻·唐韻·陽韻의 대응 관계 및 혼용 양상을 보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慧琳音義』에 나타난 반절 자료를 대상으로 江韻·唐韻·陽韻 간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고, 이들韻 간의 분리 여부 및 혼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앞 장과 동일하게, 각 피절자가 속하는韻을 기준으로 반절하자의韻 소속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慧琳音義』의 江攝 반절 분석

金雪萊(2005)와 趙翠陽(2009)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江韻이 독립적인 운류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다른韻과의 혼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

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慧琳音義』에 나타난 江韻 피절자와 그에 대응하는 반절하자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 韻 내에서의 대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사례에서 예외적인 대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동일 韻 내 대응이라는 일반적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된다.

〈표 4.1〉 『慧琳音義』 江韻의 예외 사례

피절자	반절하자	운	성조 / 等	출처
躡(覺韻)	格	鐸韻	입성 / 1等	『慧琳音義』 46卷 p. 759
躡(覺韻)	酌	藥韻	입성 / 3等	『慧琳音義』 65卷 p. 1087

이 사례들은 江韻에 속하는 피절자가 唐韻과 陽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한 경우로, 동일 韻 내 대응이 유지되는 일반적인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예에 해당한다. 『慧琳音義』의 江韻 반절 자료에서 다른 韻 간 혼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체계적 규칙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들은 江韻과 唐韻·陽韻 간의 예외적 혼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후대에 나타나는 합류 현상과의 관련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를 제공한다.

한편 『慧琳音義』의 江韻 반절 자료는 총 531건이며, 이 중 혼용 사례는 2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치는 江韻 내부의 대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확인된 혼용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난 예외적 현상임을 뒷받침한다.

2) 『慧琳音義』의 宕攝 반절 분석

金雪萊(2005)의 연구에서는 唐韻과 陽韻이 독립적인 운류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韻과의 혼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반면 趙翠陽(2009)은 『慧琳音義』 연구에서 唐韻과 陽韻 피절자와 그에 대응하는 반절하자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韻 내 대응이 유지되지만, 3건의 사례에서 江韻과 교차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도 『慧琳音義』에 나타난 唐韻과 陽韻 피절자와 그에 대응하는 반절하자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사례에서 동일韻 내에서의 대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사례에서 예외적인 대응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동일韻 내 대응이라는 일반적인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표 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확인된다.

〈표 4.2〉 『慧琳音義』 唐韻과 陽韻의 예외 사례

피절자	반절하자	운	성조 / 等	출처
腸(陽韻)	缸	江韻	평성 / 2等	『慧琳音義』 12卷 p. 171
略(藥韻)	學	覺韻	입성 / 2等	『慧琳音義』 28卷 p. 454
擻(鐸韻)	學	覺韻	입성 / 2等	『慧琳音義』 33卷 p. 542
縛(藥韻)	邈	覺韻	입성 / 2等	『慧琳音義』 36卷 p. 599
鑠(藥韻)	覺	覺韻	입성 / 2等	『慧琳音義』 37卷 p. 613
縛(藥韻)	邈	覺韻	입성 / 2等	『慧琳音義』 40卷 p. 660

爽(陽韻)	講	江韻	상성 / 2等	『慧琳音義』 86卷 p. 1408
-------	---	----	---------	-----------------------

이 사례들은 唐韻과 陽韻에 속하는 피절자가 江韻에 속하는 반절하자와 결합한 경우로, 동일 韻 내 대응이라는 일반적인 반절 체계에서 벗어난 예에 해당한다.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에서 다른 韻 간 혼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체계적 규칙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사례는 江韻·唐韻·陽韻 간의 예외적 혼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慧琳音義』의 唐韻과 陽韻 반절 자료는 총 2,591건이며, 이 중 혼용 사례는 7건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세 韻 간 혼용이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확인된 사례들이 체계적 변화라기보다는 예외적 현상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에서 江韻·唐韻·陽韻은 각각 분리된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세 韻 간의 혼용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해당 시기까지 세 韻의 대립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세 韻의 혼용이 확인되며, 이러한 혼용은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혼용이 특정 음운 환경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에서도 江韻·唐韻·陽韻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음운 환경에서는 예외적 혼용이 확인된다. 이는 세 韻 간 대립이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특정 조건에서 제한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江攝과 宕攝의 혼용 양상과 분포 특징

3장과 4장의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江韻·唐韻·陽韻은 『玄應音義』와 『慧琳音義』 두 문헌에서 분리된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반절 자료에서 세韻 간의 혼용이 확인되며, 이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玄應音義』에서는 江韻 피절자 기준 1건, 唐韻·陽韻 피절자 기준 3건의 혼용이 확인되며, 『慧琳音義』에서는 江韻 피절자 기준 2건, 唐韻·陽韻 피절자 기준 7건의 혼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반절 자료에 비해 낮은 비율에 해당하며, 세韻 간의 대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혼용의 성조 분포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성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사례는 입성에서 나타나지만, 『玄應音義』에서는 평성 1건, 『慧琳音義』에서는 평성 1건과 상성 1건의 혼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혼용이 입성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체 분포를 종합하면, 혼용 사례의 대부분이 입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입성은 폐쇄음 운미(-p, -t, -k)를 가지며, 조음이 급격히 종료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주요 모음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며, 이에 따라 주요 모음의 대비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성적 환경은 서로 다른 운류 간 미세한 음가 차이에 대한 청각적 변별을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반절 표기에서 제한적인 혼용이 나타났을 여지가 있다.

한편, 이러한 혼용 사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자료 자체의 성격과 전승 과정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玄應音義』와 『慧琳音義』는 모두 불경 음의 자료로서 필사와 전승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변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필사 과정에서의 오기나 교정 과정에서의 변형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혼용

사례는 음운 체계 내부의 변화라기보다는 자료 전송 과정에서 나타난 표기상의 변이로 이해될 여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江韻·唐韻·陽韻 간 혼용이 두 문헌 모두에서 확인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일 문헌에 국한된 우연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 모두에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곧바로 체계적 합류나 음운 변화의 진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예외적 혼용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본 논문에서는 江韻·唐韻·陽韻 간 혼용의 발생 조건을 특정 음운 환경과의 관련 가능성 수준에서 검토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분리된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혼용이 확인됨을 제시하였다. 이는 세韻 간 대립이 유지되는 가운데, 특정 조건에서 제한적인 예외적 교차 대응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자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의 반절 자료를 대상으로 江韻·唐韻·陽韻의 대응 양상을 재검토하고, 세韻 간 혼용의 존재 여부와 그 분포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두 문헌에서 江韻, 唐韻과 陽韻이 각각 독립적인 운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세韻 간의 혼용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제한적인 범위에서 세韻 간의 혼용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江韻 피절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玄應音義』에는 전체 130개의 반절 자료 중 1건, 『慧琳音義』에는 531개 중 2건의 혼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한편 唐韻과 陽韻 피절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玄應音義』에

는 전체 736개의 반절 자료 중 3건, 『慧琳音義』에는 2,591개 중 7건의 혼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세 韻 간 혼용이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분리된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확인된 혼용 사례의 대부분이 입성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江韻을 기준으로 보면, 『玄應音義』에서는 86건의 입성 자료 중 1건, 『慧琳音義』에서는 405건 중 2건이 혼용에 해당하며, 평·상·거성에서는 혼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唐韻과 陽韻을 기준으로 보면, 『玄應音義』에서는 총 3건의 혼용 가운데 2건이 입성, 1건이 평성에서 나타나며, 『慧琳音義』에서는 총 7건 중 5건이 입성, 1건이 평성, 1건이 상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분포는 혼용이 특정 성조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정 음운 환경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혼용을 근거로 세 韻의 체계적 합류나 음운 변화의 진행을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혼용 사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으로, 「표 2.1」에서 제시한 세 韻의 재구음 체계를 수정할 필요를 제기할 정도의 체계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혼용의 빈도가 낮고 각 자료 내에서도 예외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이는 전반적인 음운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제한적인 변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개별적 표기 오류나 자료 전송 과정에서의 변이로 설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혼용이 두 문헌 모두에서 확인되고, 그 분포가 입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입성은 폐쇄 음 운미로 인해 주요 모음의 대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러한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운류 간의 미세한 차이가 충분히 변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 확인된 혼용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조건적 변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전기 중고 한어에서 후기 중고 한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江韻·唐

韻·陽韻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입성이라는 특정 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의 예외적 교차 대응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혼용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확인된 혼용 사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세韻의 합류 과정이나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분석 대상을 보다 다양한 문헌 자료로 확대하여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江韻·唐韻·陽韻의 관계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參考文獻

- 권혁준, 「『古今韻會舉要』에 반영된 重紐 현상 및 그 상관 문제」, 『중국어문논총』 제19집, 중국어문연구회, 2000.
- 권혁준, 「後期中古漢語의 음운 체계」, 『중국어문논총』 제22집, 중국어문연구회, 2002.
- 권혁준, 「晉代 郭璞의 音注와 押운에 나타난 介音 체계」, 『중국어문논총』 제89집, 중국어문연구회, 2018.
- 김두재, 『一切經音義(1)-(2)』, 서울: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玄應(?)), 『一切經音義』), 2000.
- 김상환, 『一切經音義(1)-(10)』, 서울: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慧琳(807)), 『一切經音義』), 2000.
- 박성준, 「『玄應音義』와 『慧琳音義』의 음운 체계 비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 신원철, 「혜림 『일체경음의』의 한국 전파와 중국의 재유입」, 『중국문학』 제108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21.
- 儲泰松, 『唐五代關中方音研究』, 安徽: 安徽大學出版社, 2005.
- 丁鋒, 「慧琳改訂玄應反切聲類考-兼論唐代長安聲母演變過程」, 『音史新論-慶祝紹榮芬先生八十壽辰學術論文集』, 臺北: 學苑出版社, 2005.
- 黃涪伯, 『慧琳一切經音義反切攷』, 臺灣商務印書館, 1931.
- 黃涪伯, 『唐代關中方音系』,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 黃仁瑄, 「玄應音系中的舌音、唇音和全濁聲母」, 『語言研究』, 2006.
- 黃仁瑄, 『唐五代佛典音義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1.
- 黃笑山, 『「切韻」和中唐五代音位系統』, 臺北: 文津出版社, 1991.
- 金雪萊, 「慧琳『一切經音義』語音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 李吉東, 「玄應音義反切考」,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馬文熙·張歸璧, 『古漢語知識辭典』, 北京: 中華書局, 2004.
- 麥耘, 「論重紐及『切韻』的介音系統」, 『語言研究』, 1992.

- 寧繼福,『中原音韻表稿』,吉林:吉林文史出版社,1985.
- 王力,『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80.
- 王力,「玄應『一切經音義』反切考」,『語言研究』,1982.
- 文亦武,「慧琳『一切經音義』成書年代考實及其他」,『古籍整理研究學刊』,2000.
- 徐時儀,「慧琳『一切經音義』版本流傳考」,『古籍整理研究學刊』,1989.
- 楊劍橋,『實用古漢語知識寶典』,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8.
- 姚永銘,『慧琳「一切經音義」研究』,江蘇古籍出版社,2003.
- 趙翠陽,「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2009.
- 鄭張尚芳,『上古音系』,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3.
- 周法高,「玄應反切考」,『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20本,1948.
- 周法高,「從玄應音義考察唐初的語音」,『中國語文論輯叢』,1963.
- 周法高,「玄應反切再論」,『大陸雜誌』第5期,1984.
- 太田齋,「『玄應音義』反切と『切韻』反切-中古效攝所屬字の分析」,『日本中國學會報』第71期,2019.
- 太田齋,「關於『玄應音義』的音系性質和特點」,『辭書研究』第3期,2023.
- Baxter, William,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1992.
- 玄應,『一切經音義』,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62年影印).
- 慧琳,『一切經音義』,大正新脩大正藏經 Vol. 54, No. 2128(2007).

Abstract

Patterns and Distribution of Variation in the Jiang and Dang Rhyme Groups

— A Study Based on *Xuanying Yinyi* and *Huilin Yinyi*

Park, Sung Jun

This study reexamines the patterns of correspondence among the Jiang rhyme (江韻) of the Jiang rhyme group(江攝) and the Tang(唐韻) and Yang(陽韻) rhymes of the Dang rhyme group(宕攝) based on fanqie data from *Xuanying Yinyi*(玄應音義) and *Huilin Yinyi*(慧琳音義). It further analyzes the existence of inter-rhyme variation and its distributional patterns.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assumed that these three rhymes were maintained as independent categories, and cases of variation among them have rarely been discussed. However, this study identifies limited cases of exceptional cross-rhyme correspondences among the three rhymes.

Such instances of variation are not confined to a specific tonal category, but tend overall to concentrate in entering-tone syllables. This tendency suggests a possible correlation with particular phonological environments. Nevertheless, rather than interpreting these phenomena as evidence of systematic sound change,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since the possibility of scribal variation or isolated exceptional cases arising during textual transmission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Nevertheless, the repeated attestation of such limited variation in both texts merits attention. These phenomena may be understood as evidence that limited variation could emerge under specific phonological environments while the overall contrast among the three rhymes remained largely stable during the transition from Early Middle Chinese to Late Middle Chinese.

Key words : Middle Chinese, *Yiqiejing Yinyi*, *Xuanying Yinyi*, *Huilin Yinyi*, Jiang rhyme group(江攝), Dang rhyme group(宕攝)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